

인뱅,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문턱 더 높인다

케뱅크, 5월 가계대출 목표 37% 넘어... 2777억 증액 토뱅크 주택대출 목표 3166억 보다 5.1% 늘어나 “빚투 열풍 불 붙일라”... 금융당국, 관리강화 나서

올 5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가 일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한 ‘빚투’가 급증한 만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지난달까지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일부 이탈하며 당국의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편차를 보였다.

은행별 동향을 보면, 케이뱅크의 5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2777억 원으로 공급 목표치 2016억 원 대비 37.7% 초과 집행됐다. 주택대출 관리에서는 감축 목표 2571억 원을 웃도는 2668억 원을 줄이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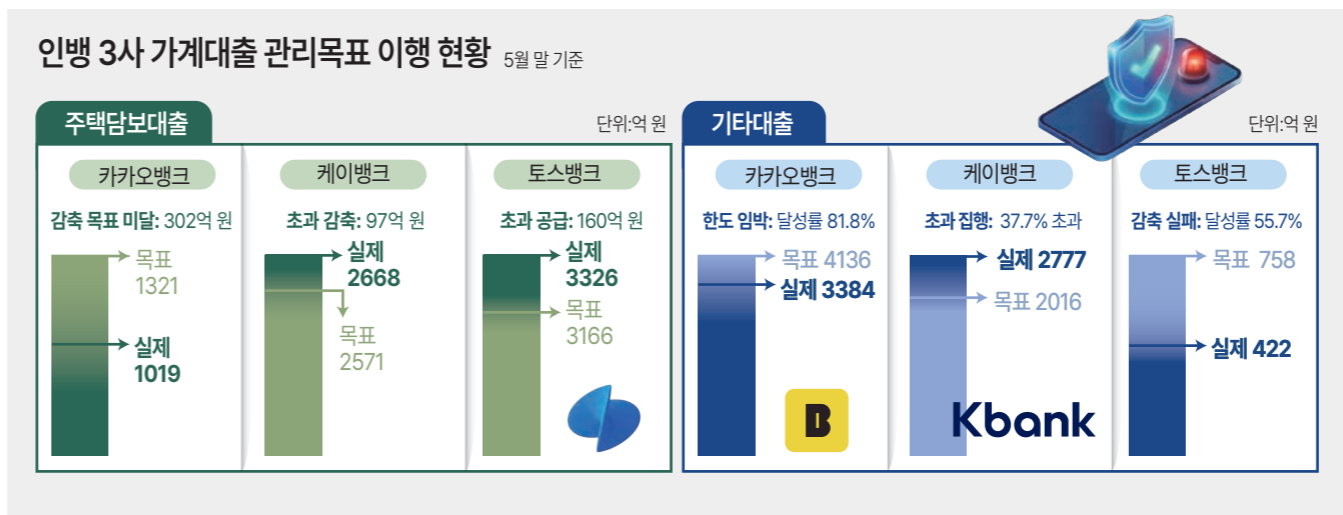
케이카카오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 전액을 가계대출에 배정했다. 5월까지 목표액 4136억 원 중 3384억 원을 집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주택대출은 당초 감축 목표 1321억 원에 못 미치는 1019억 원을 감액하는 데 머물렀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대출 758억 원 감축을 공언했던 토스뱅크는 실제 422억 원만 줄여 목표치의 절반 수준(55.7%)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 주택대출 역시 당초 공급 목표치였던 3166억 원을 넘긴 3326억 원을 집행하면서 전반적인 대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100% 비대면이라는 접근성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증시 과열기에 청년층의 무리한 레버리지(차입) 투자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미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 즉각 자금을 인출해 증시에 투입할 수 있어 사후 총량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인터넷은행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강도 높은 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모바일 뱅킹의 편리함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새로운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인터넷은행 3사는 일제히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신규 취급 제한 등을 통한 자



구축에 나섰다.

우선 케이카오뱅크는 이달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7월부터는 약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케이뱅크는 이달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렸다.

토스뱅크 역시 1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24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 고객 중 최근 3개월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40%까지 감액하는 조치를 병행 중이다.

이양수 의원은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원은 25일 고금리 변동 차량 담보대출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받은 불법 사금융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직접 넘겨받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했다.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 금리를 넘기는 방식이다.

대부업법상 주차비나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 사례의 대출 금액은 250만~3000만 원 수준이었다. 선금제금과 출장비·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정한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 각 1명 등이었다.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운행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차장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를 채무자가 물게 되는 피해도 있었다.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리스 차량은 리스 회사의 소유라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불법 차량담보대출 급증 “주차비·출장비도 요구”

박지혜 기자 parkjh@skyedaily.com

금·은·비트코인 동반 급락... 글로벌 자산시장 흔들

금값 4000달러선 붕괴... 銀, 최고점 대비 54% 폭락 비트코인 5만9000달러선까지 밀려 시장 불안 확산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와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던 자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유동성 축소와 투자 심리 위축 우려가 커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급격한 유동성 위기보다는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 투기 수요 이탈이 맞물린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iM증권은 25일 발간한 ‘금, 은 및 비트코인 동반 급락의 의미’ 보고서에서 금·은·비트코인이 이를 연속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4일 종가 기준 금 가격은 전일보다 2.9% 내린 온스당 3997달러를 기록하며 4000달러 선 아래로 밀렸다. 은 가격은

23일과 24일 각각 5.4%, 6.8% 내렸고,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3.1%, 2.3% 하락했다.

iM증권은 자산 가격 동반 급락의 배경으로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 △투기적 수요 급감 △대형 AI 기업으로의 유동성 쏠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가장 큰 변수는 긴축 리스크다. 연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컸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미 국제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맞물리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과 은의 기회비용이 커진 점도 하락 요인이다.

달러 강세도 부담이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로존은 침체



iM증권이 2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은·비트코인이 이를 연속 동반 약세를 보였다. 시생성 이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국 불안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졌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과 원자재 가격에는 부정적인 환경이다.

투기적 수요 이탈도 낙폭을 키웠다. 긴축

우려와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금·은·유가 상승에 베풀었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특히 은 가격은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축소와 맞물려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도 자산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iM증권은 스페이스X 상장

과 대형 AI(인공지능) 기업의 자금 조달 등을 계기로 투자 자금이 AI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서 산업용 금속과 원자재 수요가 둔화된 점도 금·은 등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금 가격은 올해 1월 말 온스당 5417달러 이후 약 26% 떨어졌고, 은 가격은 1월28일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16.7달러를 기록한 뒤 이달 24일 기준 54% 폭락했다. 비트코인도 같은 날 장중 5만9118달러까지 내려앉으며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iM증권은 이번 조정을 유동성 위기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강화되면서 자산시장도 다시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